



■ 줄 세우기 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상품·광고에 대한 비판보도(2020.02.13.)

# 초등학생에게 전국석차 알려주며 학부모에게 불안을 파는 대형 사교육 업체를 고발합니다.

- ▲ 사교육걱정(이하 ‘사교육걱정’)은 아이들이 줄 세우기 경쟁교육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줄 세우기 없는 교육 캠페인’을 진행해왔음.
- ▲ 이 캠페인을 통해 성적에 의한 학교 내 차별, 진학결과 현수막 게시 등 교육 현장의 그릇된 관행을 개선해 왔으며, 같은 흐름에서 교육부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혁신하겠다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평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에듀의 ‘홈런모의고사’와 ㈜천재교육의 ‘내전석(내 아이 전국 석차)’이라는 사교육 서비스는 현 정부의 교육 방향에 역행함.
- ▲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문제를 제공하고 풀이한 결과를 분석해주면서 ‘전국 백분위 정보’까지 여과 없이 제공함. 업체가 선별한 단 몇 문항의 풀이결과 분석으로 나온 전국 백분위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의심되며, 백분위와 같은 상대평가 정보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함.
- ▲ 특히나 아이스크림에듀와 천재교육은 비록 사교육 기업이지만, 학교에서 해당 업체의 콘텐츠들이 활용될 만큼 공교육과 밀착도가 높다는 점에서 막중한 교육적 책임을 담보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시험이 없어서 객관적 수준을 알 수 없다’며 전국 석차를 알려주는 퇴행적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 ▲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가 폐지 추세이고, 2013년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됐으며, 2017년도부터 해당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됨. 이는 정부 차원에서 경쟁·입시 중심의 획일적이고 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서열화된 성적 산출이 초래할 경쟁·불안 과열을 막기 위함임.

▲ 아이스크림에듀와 천재교육 등 사교육 업계는 초등학생부터 학업 성취에 대한 열패 감·불안감을 자극하고 경쟁을 과열시킬 우려가 큰 ‘줄세우기’식 상품 개발 및 홍보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내리고 규제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부터 ‘줄 세우기 없는 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내외 성적순 차별, 진학결과 현수막 게시 등 성적과 학별로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줄 세우는 그릇된 관행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금번에는 초등학생들에게 평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홈런모의고사(아이스크림에듀社)’와 ‘내전석(내 아이 전국석차: 천재교육社)’ 라는 사교육 서비스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학년에 따라 온라인으로 평가 문제를 제공하고, 학생이 문제풀이 후 제출한 결과를 채점과 더불어 시스템을 통해 학업성취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상품입니다. 두 업체들은 모두 결과분석에서 문제를 푼 학생이 전국적으로 100명의 학생 가운데 몇 등이나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인 ‘전국 백분위’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요하게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이 실제로 예시한 결과분석 페이지에는 ‘전국 상위 0%’와 같이 상대평가 결과가 산출되는 백분위 정보가 버젓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단 몇 문항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게 하고 채점 결과로 현재 전국적으로 줄을 세웠을 때 몇 등 수준인지를 초등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상품 광고를 통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버젓이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천재교육의 경우 해당 상품의 배너 광고를 심지어 천재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지원 사이트에까지 실었습니다.

[그림 1]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모의고사’의 온라인 광고



[그림 2] 천재교육 ‘내전석(내 아이 전국석차)’의 온라인 광고

**내 아이 전국 석차**  
수학 석차 진단 도구로  
성취 수준 확인하기!

GO!

**내전석**  
내 아이 전국 석차

**내 아이 전국 석차가 궁금하다면? 수학 공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요?**

현재 나의 수학 실력은 **전국에서 몇%** 일까요?  
밀크T 내전석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공신력 있는 천재교육 천재교과서의 수학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전석에서  
단 몇 문제만 풀어도 **전국 석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재미와 흥미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학습생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와 수준을 모르면 당연히 일반적인 학습지와 학원 강의를 통해  
진도를 맞추게 되고, 결국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학 포기 학습생이 나오거나  
너무 쉬운 수준의 학습으로 인해 학습에 흥미와 시간을 버리는  
학습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재의 나의 실력(전국 석차%)**을 알고 그에 맞는 학습을 하되,  
**천천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교육 업계에서도 규모가 큰 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육社는 다년간의 업력으로 전국적인 학생 성적·문항 DB들을 다량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몇 등인지 상대평가 결과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가 선별한 단 몇 문항의 풀이 결과 분석으로 나온 백분위가 과연 의미있는 학업성취 지표인지에 대한 평가 타당도 문제뿐 아니라, 표본 특성이나 오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국 백분위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의 평가 신뢰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림 3]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모의고사’의 결과분석 화면



[그림 4] 천재교육 ‘내전석(내 아이 전국석차)’의 결과분석 화면



백분위는 상대평가 정보로서 학습 내용을 제대로 잘 배웠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학생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은 나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도감보다는 무한경쟁 의식과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제공되어야 할 지표입니다. 특히나 금번에 문제가 된 업체인 아이스크림에듀社의 교육 콘텐츠들은 다수의 초등교사들이 학교 수업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천재교육社 역시 오래도록 학교 수업용 교과서를 출판해왔던 업체입니다. 즉, 두 곳 모두 사교육 기업이기는 하나 공교육과 밀착도가 높아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논리만이 아니라 막중한 교육적 책임을 담보한 사업을 전개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없어서 객관적 수준을 알 수 없다'며 전국 석차를 알려주는 퇴행적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광고하는 소비자 현혹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림 5] 천재교육 '내전석(내 아이 전국석차)'의 온라인 광고

지난 10여년 간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 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에 내린 지침을 시작으로 경기·강원·전북·전남·세종·울산·광주·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사실상 폐지된 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차 시·도 및 학교 간 등수 경쟁, 시험 대비식 교육과정으로의 파행적 운영을 야기해온 초등학교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단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서열화된 성적 산출을 통한 경쟁·입시 중심의 획일적이고 줄 세우기식 교육을 종식하고,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을 추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6] 초등학교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시행

<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29(금)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p> <p>○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고2 전체 학생(약 110만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에 대해 지난 6월 25일(화) 실시되었다.</p> <p>○ 이번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 교과를</p> <p style="text-align: right;">2013-11-29 교육부 보도자료</p>
---

아이스크림에듀와 천재교육 등 사교육 업체는 이러한 교육적 흐름을 역행하는 반교육적 행태를 멈추고, 학업 성취에 대한 열패감·불안감을 자극하며 경쟁을 과열시킬 우려가 큰 ‘줄 세우기’식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액·불법 사교육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줄 세우기 교육을 조장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교육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침을 내리고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0. 2.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